

# 현실에서 출발해 현실을 꿰뚫은 통찰

박홍규 전집과 추모논문집 출간을 보며

윤구병

충북대 교수·철학과

지난 수요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존재론 강의를 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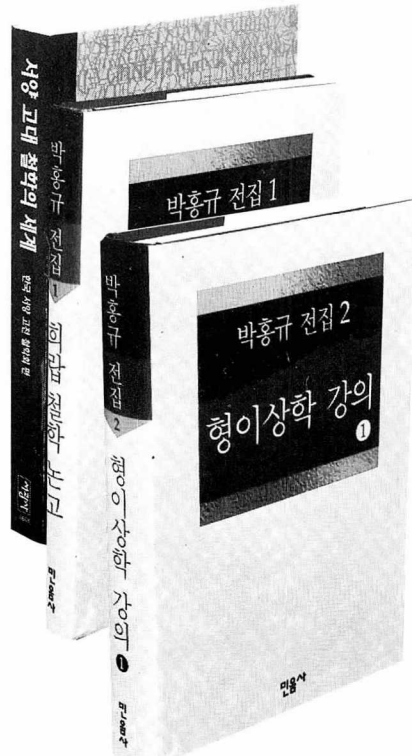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야 할 책을 한권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전집 제2권 《형이상학 강의 I》입니다. 박홍규 교수 사망 일주기를 추모하여 제자들이 얼마 전에 세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추모 논문집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와 박홍규 전집 제1권 《희랍철학 논고》 제2권 《형이상학 강의 I》이지요. 이 가운데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는 제자들의 논문을 모은 책이고, 《희랍철학 논고》는 박선생님이 생전에 발표한 논문 여덟편과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철학개론》의 서론, 고대 및 중세 부분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고, 《형이상학 강의 I》은 앞으로 출판될 《형이상학 강의 II, III, IV, V》와 함께 박 선생님의 토론회 강의를 제자들이 녹음하여 두었던 것을 풀어서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 학문탐구 50년의 외길 걸었던 분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박선생님은 살아 있는 동안 저서를 한권도 남기지 않았습다. 저서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번 학과장을 맡은 적을 빼고는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한번도 어떤 직책을 맡은 일이 없이 평생 동안 학교와 집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며 연구와 강의에만 몰두했어요.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가끔 산책을 하거나 산에 오르는 것을 빼면 따로 취미라 할 것도 없었지요. 1945년에 대학에 몸담은 뒤로부터 199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동안 오직 학문 탐구의 외길만 걸었던 분입니다. 박선생님은 우리 철학계에서 외국어를 가장 많이 알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희랍어, 라틴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한문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통했습니다.

박선생님은 평소에 늘 모든 학문은 구체적인 자료(data)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고,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지요. 선생께서 피히데나 헤겔 같은 독일 철학자뿐만 아니라 독일철학 일반을 크게 신뢰하지 않은 까닭도 독일의 철학 풍토가 구체적인 자료(data)와 객관적인 대상에서 출발하지 않고 늘 주관에서 출발하여 실증과학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세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생님은 자신을 좋은 선생이 아니라고 여겼던 듯합니다. 그래서 가끔 수업시간에 이



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티쳐(teacher)가 못 돼. 나는 댕커(Denker)야 댕커.’

선생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사상가)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좋은 선생이 아니라는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일흔다섯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더 오래 살아남아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깨움을 주지 못하는 데 대해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상흐름 꿰뚫는 독창적 이론 세워

박선생님은 서양 고대철학에서부터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있게 공부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넓고 깊게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한 분야를 탐구한 분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들겁니다. 파르메니데스, 제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스킴라 철학, 데카르트, 콩트, 하르트만, 셸러, 베르그송...

철학뿐만 아닙니다. 프로이트, 피아제 같은 심리학자들, 그밖에 인류학자들의 저서도 깊이 연구했지요. 거기에 곁들여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선생님은 이 모든 사상의 흐름을 꿰뚫는 작업을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즐기차게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형이상학에서 가설(hypothesis)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박홍규선생님은 50년 동안

오직 학문탐구의 외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모든 학문은 구체적인

자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던 선생님은 서양 고대철학에서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또 심리학과 인류학, 유불사상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사상의

흐름을 꿰뚫는 작업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즐기차게 해나갔습니다.”

박홍규 교수의 일주기를 추모하여 나온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희랍철학 논고》《형이상학 강의 I》이 세권이 모두 뛰어난 학문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형이상학 강의 I》을 꼭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형이상학 강의》는 동서양 철학 전역사를 통하여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대화록 형식으로 이루어진 철학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 맹자의 사상을 모은 《맹자》, 플라톤의 여러 《대화편》이 주고받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나 선생과 제자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하나도 덜거나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옮겨서 책으로 엮은 예는 제가 알기로 이천년이 넘는 철학의 역사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형식이 독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우긴다면 우스운 일이겠지요. 이 책에는 독특한 형식에 못지않게 철학의 전역사를 관통해서 핵심이 되어왔던 여러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1985년 6월 15일 정년퇴임 기념으로 원고 없이 즉석에서 강연한 ‘고별강연’과 뒤에 그 고별강연을 제자들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서 토의한 ‘고별강연 검토’ I, II, III, IV를 비롯하여 우리는 무엇을 우연이라고 하고 무엇을 필연이라고 하는지를 공간축과 시간축에서 파헤친 ‘필연’, 플라톤과 베르그송 철학에 나오는 운동의 문제를 다룬 ‘자기운동’ I, II를 거쳐 ‘삶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의 기본문제들이 구체적인 자료의 뒷받침과 함께 날날이 심도있게 독창적으로 점

검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면 박홍규 선생님은 《형이상학 강의 I》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통찰력은 어떤 철학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홍규: 아테네는 전쟁에서 이겼어. 요컨대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어. 플라톤을 읽으면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들은 안 나와. 그러나 성서를 읽으면 기적을 일으켜 빵을 먹이고 고기를 먹였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거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말이야. 성서에는 패전국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약탈당하는 사람, 먹을 것 없고 병든 사람, 몸파는 여자들이 나와. 희랍에서는 그런 것 없어. 그러나 거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선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야. 우선 먹을 것이 없어. 플라톤의 책에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행복한 상태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만 설정하면 되지만 성서가 그리는 세계는 법이 고 뭐고 없고, 법 이전의 세계야. 우선 먹고 나야 법이 생기지. ...성서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여인을 치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법이 살아 있다면 당연히 쳐야지. 그래서 벌을 해야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가 칠 사람이 있느냐는 거야. 그 말은 법이 땅에 떨어져서 법이 없다는 얘이야. 법을 지키면서 살 세상이 아니었지... 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시대야. 우선 먹고 살아야지. 한국 교회나 불교가 곡식을 달라,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적이러는 것도 그 근본은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야. 이것은 더 심각한 거야. 법 이전의 세계야...’

철학은 구체적인 자료에서 출발해야 하고,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다루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론이 잘 나타나 있는 대화의 한도막입니다.”

##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철학적 사유

그날 내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비록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존재의 근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 한국 서양 고전철학회 펴냄  
서평사/A5신/430면/11,000원  
《희랍철학논고》《형이상학강의 I》/ 박홍규 지음  
민음사/각 A5신/310면, 524면/10,000원, 15,000원